

## 보도설명자료 (17. 10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신재생 발전목표 달성에 80조원 필요

(17. 10. 26, 한국경제)

### 1. 기사내용

- ‘신재생 3020’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80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옴
  - 발전6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 6사가 2030년까지 신규로 건설해야 하는 신재생 설비는 33GW 규모
  - 33GW의 신재생 설비를 짓기 위해서는 약 8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되며 민간 건설설비의 지원금까지 포함시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액수는 80조원보다 늘어날 전망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**발전공기업**이 ‘30년까지 건설해야할 신재생에너지 설비량은 확정된 바 없음
-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**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추진**되어, 발전공기업은 일부만 부담하며 대부분 민간투자 중심
  - \* 예시) 부산신호 태양광발전(PF 85%, 동서발전 3.75%만 참여) 등
- 따라서,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**민간의 투자를 창출**하는 효과
  - 또한,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경우, **연료비가 없어 초기 투자비에 비해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는 장점** 등도 고려 필요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전병근 과 장 (044-203-5160)  
임경섭 사무관 (044-203-5163)

